

## 【 국내금융 뉴스 】

## 보험회사 대출채권 연체율은 소폭 상승

□ '08.11월말 현재 보험회사 대출채권의 규모는 81.0조원(생보:손보=67.7조원:13.3조원)이며, 연체율은 '08.9월말 대비 0.11%p 상승한 3.72%를 기록함.

○ 이는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보험회사 대출채권의 71.6%를 차지하고 있는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이 주된 원인으로 나타남.

□ 부문별 보험회사 대출채권 연체율 현황을 살펴보면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3.31%이며, 기업대출의 연체율은 4.75%로 나타남.

○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은 최근 보험약관대출의 연체율이 소폭 상승('08.9월말 4.39%→'08.11월말 4.51%)한 데 기인한 것으로 나타남.

○ 반면, 기업대출의 경우 중소기업대출 및 부동산 PF대출의 연체율이 각각 2.34%, 2.44%를 기록해 '08.9월말 대비 각각 0.14%p, 0.21%p 상승하였음.

□ 최근 보험회사 대출채권의 연체율이 소폭 상승하였으나, 대부분 부실화 가능성이 낮은 보험약관대출의 연체에 기인하며, 손실흡수능력\*은 111.9%('08.9월말 현재)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임.

\* 손실흡수능력(Coverage Ratio = 대손충당금 / 부실채권)

□ 다만,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보험회사 대출채권의 건전성이 저하될 소지가 있어 여신부문별 연체율 동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며, 리스크요인에 대해서는 사전·사후적 관리를 보다 강화할 예정임.

( '08.11월말 현재 보험회사 대출채권의 연체율 현황, 금융감독원 생명보험서비스국 건전경영팀, 1/20)